



행사스케치

'제16회 농업인의 날' 행사 성료

글·사진 : 편집부

농업인들의 땀과 열정! 대한민국 힘의 근원

'제16회 농업인의 날' 행사 성료



도시민과 농업인간 상생·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제16회 농업인의 날' 행사가 지난 11월 11일(금)~13일(일)까지 수원 소재 농촌진흥청에서 개최됐다. 매년 11월 11일에 개최되는 농업인의 날은 1996년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특히 올해 농업인의 날은 11년 11월 11일로 숫자 1이 6번 겹치는 기념일로 100년에 한번 씩 찾아오는 매우 의미 있는 날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뜻 깊은 이번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위하여 먼저, 11일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기념식 행사와 우수 농업인에 대한 시상식을 통해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기념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 및 농업인단체장, 소비

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으며, 농식품 분야 우수유공자 130명에게 수상의 영예가 주어졌다.

김황식 총리는 지시를 통해 “갈수록 소비자들의 기호는 다양해지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다품목 소량 생산, 고부가가치 명품을 생산하는 농업에는 우리처럼 작은 규모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며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기념식 행사와 함께 대운동장에서는 '농촌사랑 한마음 직거래 장터'가 개설돼 전국의 농업인이 생산한 고품질 브랜드 농산물을 시장가보다 20~40%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직거래장터에서



① 김형식 국무총리의 치사 ② 행사 설명을 듣고 있는 내빈 ③ 현장방송 진행 ④ 전통식품판매 홍보관 ⑤ 미술대회 입상작 전시회
⑥ 여치집만들기 체험 ⑦ 먹거리 장터 ⑧ 화분 텃밭 체험

는 소비자와 함께하는 행사가 어우러져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꼬마 메주만들기, 전통 두부 만들기, 떡메치기, 꽃떡 만들기, 잡곡 타작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더불어 정부에서 인증하는 친환경농산물인증,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전통가공식품 등 각종 인증품 전시와 국내산 수입산 농산물의 비교전시관도 같이 운영하여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개막식 당일에는 현장방송을 통해 직거래장터 현장에서 농산물 판매와 각종 전통체험 등을 통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국민들에

게 전달하였으며, 12일(토)에는 KBS출발 드림팀 공개 녹화를 진행하여 전국에서 선발된 농업인 7명과 아이돌 연예인 7명이 농식품 장관이 기증한 농산물을 두고 뜨거운 한판 승부를 벌여 국민들에게 건강한 웃음을 선사 하였다.

협회, 오리고기 소비촉진행사 성료

- 오리요리 전시와 시식행사로 국내산

오리고기 우수성 홍보

- 오리고기 원가판매로 역대 최고 판매량 기록

우리 협회는 최근 공급물량과잉과 불경기로 인한 소비



행사스케치

'제16회 농업인의 날' 행사 성료



- ① 가정식 요리요리 12선 전시
- ②, ③ 시식을 기다리며 요리요리 전시를 관람하는 소비자
- ④ 오리고기 녹두죽
- ⑤, ⑥ 오리고기 시식을 위해 몰린 참관객들
- ⑦, ⑧ 오리고기 원가 판매
- ⑨ 가정식 요리요리 12선 전시
- ⑩ 시식행사진행
- ⑪ 훈제오리 발사믹샐러드
- ⑫ 오리고기 시식을 하고 있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오리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오리고기 소비촉진에 기여코자 직거래장터에 참석해 오리고기 원가판매 및 전시·시식행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협회는 직거래장터에 참여한 농산물 홍보 부스 가운데서, 보다 소비자들에게 돋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홍보부스를 차별화했다. 부스 설치 시 함께 활용한 오리모양 풍선은 아이들 및 가족단위 소비자에게 높은 관심을 얻었고, 덕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오리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부스 한편에 맛깔스럽게 전시한 요리요리도 시식을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지루함을 없애면서 볼거리의 재미를 배가했다. 최근 여성중

양과 함께 발간한 레시피북「국내산 오리고기와 함께하는 특별한 밥상」의 요리요리 12선을 그대로 재현하여 요리요리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한편 행사가 진행되는 3일 동안 매일 전시용 오리고기를 교체하여 신선하고 위생적인 가정식 요리요리의 모습을 선보였다. 그 중 대표적인 요리요리 3선(오리주물럭구이, 오리스테이크와 마늘소스, 오리훈제발사믹샐러드)을 시식행사를 통해 맛보였으며, 오리고기 원가 판매로 국내산 오리고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협회는 오리고기 시식 및 판매 시 오리고기 원산지 홍보전단지 및 기념품을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국내산 오리고기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강조하였다. 국내산 오리



고기 우수성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오리고기 특가 판매 시 광고 안이 프린트 된 쇼핑백에 위생팩과 위생장갑, 국내산 오리고기를 활용한 요리책자, 원산지 홍보 전단지 등을 함께 제공하였다.

특히 오리고기 판매 시 활용한 쇼핑백을 많은 참관객들이 행사장 관람을 하며 들고 다녀 2차적 광고 효과를 보았다. 이번행사는 파격적인 할인 판매로 소비촉진 행사 역대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는 한편 현재 불경기의 여파로 침체된 오리고기 소비촉진 활성화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

우리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해마다 개최

되는 농업인의 날, 우리 협회는 다양한 오리요리의 시식 행사와 전시·홍보행사 개최를 통해 대중육류로서의 친근함에 한 발자국 다가갔다.

농업인의 날은 해가 거듭될수록 행사와 직거래 장터의 규모가 축소되고, 몇 해 전부터 11월 11일이 제과 업체의 상품과 연계한 기념일로 인식되면서 그 의미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우리 농업인 모두가 힘을 모아 생산자들만의 연례행사로 고착되지 않도록,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활동을 통해 기념일로서의 의미를 제고하였으면 한다. 내년 농업인의 날 행사에는 더 많은 소비자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고대한다.